

“사랑과 희망까지 뒤어요”



상주 호암사 아이들과 스님이 함께 만드는 백련차



호암사 아이들이 지난 4월부터 정성껏 재배한 백련잎으로 차를 만들고 있다.

9월 17일 가을이 익어가는 일요일. 스님 한 분과 오갈 데 없는 어린이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경북 상주 호암사(주지 현종)는 올해 처음 수확한 백련잎으로 연차를 만드느라 분주하다.

태풍 산산의 북상으로 비까지 뿌리는 데도 이른 새벽부터 700m 떨어진 논에서 연잎을 수확해 오느라 16명의 식구들이 식전 닻바람부터 손발을 바쁘게 움직인다. 현종 스님이 “날이 추워지면 연잎이 이렇게 낙엽진다”며 일을 서둘렀다.

초등학교 2학년 막내부터 20살이 훌쩍 넘은 형과 누나까지 호암사 식구들이 총 출동했다. 아이들의 ‘엄마’인 공양주 이옥연(55) 보살과 인근 마을의 신도들까지 가세하니 절은 순식간에 연차공장을 방불케 한다.

초등학교생들은 비에 촉촉이 젖은 연잎

현종 스님 16년째 ‘아빠노릇’
후원줄어 백련재배 지극 정성
첫 수확 기쁨, 인터넷 카페도

을 정성스럽게 닦고 스님은 연잎에 붙은 연대를 잘라낸다. 중·고등학교 누나들은 도마를 차지하고 앉아 연잎을 잘게 찢고, 형들은 다섯 개의 대형가스 불 위에서 잘게 찢은 연잎을 노릇하게 튀어냈다.

연차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작업은 연잎을 노릇노릇하게 튀어내는 일.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된다. 수분이 자연스럽게 증발해 백련특유의 향을 그대로 머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잎을 튀다가 식히길 무려 아홉 번을 반복해야 노릇노릇한 연차가 만들어진다.

16년 전 봉암사 선방에 들어가려다가 우연히 한 아이를 맡게 되면서 16년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현종 스님은 “MF 이후 계속 줄어드는 후원만을 마냥 바라볼 수 없어 지난 4월 백련을 분양받아 인근 논 1200여 평에 심게 됐다”고 말했다.

현종 스님은 지난 4월부터 백련을 재배하느라 하루도 쉬지 못했다. 농약과 비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풀을 뽑아야 했다. 그러나 일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생명을 키우는 또 다른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호암백련’(<http://cafe.naver.com/qorlus.cafe>)이라는 카페도 개설해 연이 발아해 연꽃을 피운 사진들을 일일이 올려놓았다.

이렇게 만든 호암백련차 가격은 70g 한 통에 3만 원이다. (054541-7863 글·사진/상주=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장성지씨 ‘가을소풍’ 최우수상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이 주최한 제3회 가족사진콘테스트에서 장성지(30)씨가 출품한 ‘가을 소풍’(사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정태영씨의 ‘나란히 나란히’와 강윤희씨의 ‘우리는 화가’가 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족애를 느낄 수 있도록 2004년부터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엔 입상한 20여 작품을 9월 28일 열리는 ‘추석맞이 한마당 잔치’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현대음악으로 동서 문화 융화

해인사서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음악회 10월 8일

김지영의 ‘팔만대장경’ 초연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하는 음악회가 해인사에서 열린다.

10월 8일 오후 7시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리는 양성원, 필립 그라핀, 드니스 파스칼의 한불트리오 콘서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프랑스 문화원, 성남아트센터, 해인사 후원으로 열리는 음악회에서는 한국의 현대음악 작곡가 김지영이 특별히 작곡한 대금, 바이올린, 첼로의 트리오편곡 ‘Tripitaka Koreana(팔만대장경)’과 프랑스 작곡가 피에르 샤프베르가 작곡한 ‘한국&프랑스’ 모티브의 피아노 트리오편곡 ‘Sonko Trio’가 최초로 연주된다.

김지영의 Tripitaka Koreana(팔만대장경)를 초연하기 위한 무대로 팔만대장경이 봉안돼 있는 해인사를 택하게 됐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이번 음악회를 주최하는 서울 스트링스 사이어터 A&A는 “한국에서는 요즘 프랑스의 뮤지컬 ‘노틀담 드 파리’를 비롯한 여러 공연 작품들이 연속 흥행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2002월드컵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한국과 프랑스는 그 동안 서로의 문화융합을 꾀한 작품이 없었다”며 “한불 수교 120주년을 기념하여 뜻있는 음악가들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를 모티브로 한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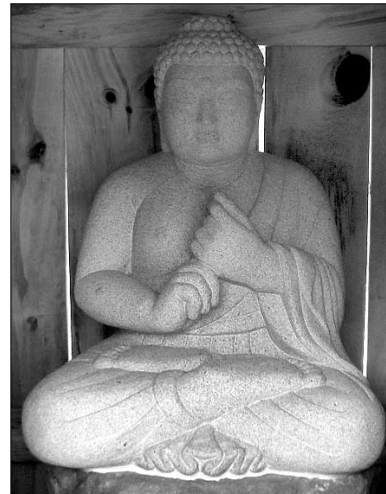
〈팔만대장경〉을 모티브로 한 김지영의 대금을 위한 트리오 작품은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팔만대장경〉을 만든 장인들의 열과 정성을 기리는 진양조의 대금연주로 시작해 〈팔만대장경〉이 담고 있는 부처님의 설교와 불교계를 등을 중모리로 풀어내고, 셋째부분은 중중모리로 〈팔만대장경〉을 습기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관하는 수나라장과 법보전의 수수께끼 같은 비밀을 담았다. 넷째 부분은, 일본이 83차례나 요구했던 대장경 양도를 거부하며 우리 것을 지켜온 조상의 집념과 정성을 기리는 자진모리, 마지막 부분은 한불 12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악기인 대금과 서양의 바이올린, 첼로가 서로 어우러져 즐겁게 한판 놀아보는 엇모리, 동살불이, 그리고 휘모리로 막을 내린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융화를 현대음악으로 표현하는 음악가로 알려진 작곡가 김지영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퍼포먼스의 상주 작곡가로 있으며, 아시아, 미국, 유럽 등지에서 그의 작품들이 연주되고 있다.

배지선 기자

미륵마을에 새로오신 미륵부처님

의성 덕미리 주민 뜻모아 봉안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이장 이대일·69) 미륵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모아 미륵석불좌상(사진)을 9월 15일 봉안해 화제가 되고 있다.

덕미 2리는 예로부터 미륵불이 모셔진 마을이라고 해서 미륵마을로 불린다. 마을 가운데 미륵불을 모셔놓은 용화전이 있고, 약 450여 년 전 정주이씨의 증시조인 이태

득 씨의 꿈에 나타난 미륵석불을 땅에서 찾아 마을에 모시게 됐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22가구 마을주민 모두가 불자인 미륵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월 14일이면 마을에서 가장 정결한 사람을 뽑아 미륵재를 지낸다.

그런데 그 미륵불이 1983년 도난 당했다. 이후 마을 주민들은 미륵석불을 새로 조성했으나 그 형상이 조잡해 몇 차례의 마을회의를 거치고 인근 대곡사 주지 해봉스님의 자문을 얻어 불모 박종병 씨에게 의뢰해 미륵석불좌상을 다시 모신 것이다. 마을주민들은 이를 위해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하고 군비를 보조받아 삼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말부터 불사를 시작했다.

덕미2리 이대일 이장은 “평생 농사만 지어온 60세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 불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미륵불을 새로 모시고 나니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대곡사 해봉 스님은 “대곡사가 예전에 9개의 암자를 거느린 대가람이었는데 150여 년 전(도강 18년) 증수했다는 기록이 발견된 용화전도 이 9개의 암자중 하나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남불교대학 구미도량 개원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구미도량(주지 세진)이 9월 19일 구미 송정동에서 개원했다. 130여평 규모의 영남불교대학 구미도량은 요사채와 서정, 종무소, 공양간, 방송실, 다실 등의 공간을 갖추고 석가모니부처님을 봉안했다.

이날 개원법회(사진)에는 석대용 구미시청불자회장, 구미신문사 김길상 실장, 김상길 총동문신도회장과 영남불교대학 동문신도 지역 불자들이 참석했다.

(054452-6636 배지선 기자)

대광불자회 범당미련 일일차집

대광맹인불자회(회장 이재갑)가 9월 16일 대구 보현사에서 범당미련불자회(주지 김기현)가 주관한 일일차집을 개최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어진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한 지역신행단체장과 불자 등 500여명이 다녀갔으며, 허운 스님은 지역 장애불자들을 위한 포교기금으로 1백만원을 전달했다.

대구불교봉사단과 대구불자후원회, 맹인불자회원들의 인마시술이 하루 종일 이어져 인기를 끌었다. 배지선 기자

동화사 개산대제, 10월 14일부터

팔공산 동화사(주지 허운)의 1513주기 개산대제가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다.

‘동화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라는 주제로 10월 14일 오전 9시부터 개산대제 기

범법오식을 병행한다.

일주일간 동화사 옛길걷기 체험과 산행대회, 금석문물전과 탁본체험, 불교사진공모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20일에는 봉축전야제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시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불교의식(범음·범패)수련생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27기)
- 교육방법 : (1) 출강 매주 월요일·수요일 오후 3시~5시(2시간)
(2) 통신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① 송 주 편 (도량석·조석종성 등)
- ② 예 경 편 (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혜례·사성례·신중단 등)
- ③ 헌 공 편 (삼보통칭·중단퇴공·불공시식·관음·지장·신중칭 등)
- ④ 재 의 식 편 (천도제·49제·시다림·기계사·명절제사·방생의식 등)
- ⑤ 시 식 편 (관음시식·화엄시식·상용영반·구명시식 등)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 개강일시 : 2006년 10월 11일(수) 오후 3시(투박,필기구 지참)
-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빙의 사전 제대로 알아!”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주세요.

-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